

“상무대 영창·군항발 등 ‘그날의 상처’ 사진으로 달래야죠”

서울 ‘오월 광주 치유사진전’ 기획 임종진씨 참여자들 가족·지인들과 소통도... 변화 실감

“5·18 당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죄인이 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 역시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존재 의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만난 ‘오월 광주 치유사진전-기억의 회복’ 사진전 기획자 임종진(47)씨는 사진치유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 기획자로 참가한 임씨는 5·18 당시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뒤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가 붙잡혀 모진 고문을 경험한 5·18 유가족 정홍섭(62)·황의수(62)씨 등 9명을 대상으로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날의 아픔 이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들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5월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사진 잘 찍는 법을 가르치지 보다는 그들이 그날의 아픔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기엔 이들 스스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산이나 바다에서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찍도록 했다.

구도가 재미 있는 사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이들도 자연스럽게 사진 찍기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났을까. 이들 스스로 5·18에 대해 서서히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임씨는 이들에게 “5·18 당시 사연이 있는 장소를 사진 속에 담아 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들의 반발은 예상 외로 거셴다. 하지만, 임씨는 이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떠올리고 싶지도, 생각조차 싫은 대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며 이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사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임종진(47)씨가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5·18 유가족 참여 작가인 황의수(62)씨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그날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임씨의 뜻을 받아들였다.

5·18 유가족 참여작가 정홍섭씨는 자신이 모진 고문을 당한 ‘상무대 영창’을, 황의수씨는 자신이 계엄군의 총과 군항발에 짓밟힌 전일빌딩 후문 계단을 사진으로 찍었다. ‘잊고 싶었던 그날의 사진’을 찍은 이후 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다. 가족·지인들, 세상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5·18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최용식(59)씨는 우울증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단절했던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 하게 됐다. 또 정철(56)·김광수(53)씨 등은 사진 찍기라는 새 취미를 통해 주변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들이 직접 찍은 그날의 사진을 통해 상처가 나가는 모습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목인데,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이종형기자 golee@
/백희준 수습기자 b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해질 23:42
해진 19:32 달뜨기 09:40

큰 일교차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13/29	보성	흐림	10/26
목포	흐림	13/25	순천	구름 많음	14/28
여수	흐림	16/24	영광	구름 많음	11/26
나주	구름 많음	10/29	진도	흐림	11/26
완도	흐림	13/26	전주	구름 많음	12/30
구례	구름 많음	10/29	군산	구름 많음	12/30
강진	흐림	11/27	남원	구름 많음	10/30
해남	흐림	11/28	옥산도	흐림	13/21
장성	구름 많음	9/28			

◇바다 날씨

시/도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면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면바다	동~남동	1.0~1.5	동~남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29	10:35	17:34	22:41
여수	00:01	06:10	12:12	18:08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	☁	☁	☁	☁	☁	☁
16/23	14/26	13/29	14/29	14/28	16/25	18/24



구묘역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 5·18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옛 망월묘역(3묘역)에서 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에 참석한 진보진영 인사·시민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인공 없는 기념식장 경찰들만 준비 日 反戰인사들 “희생자들의 용기에 감탄”

○광주대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1960~1970년대의 검은색 남·여 교복으로 차려입은 뒤 ‘그날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학생이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A3 크기의 피켓을 들고 추모객들에게 세월호 참사 및 5·18 유족들을 위로했다.

○5·18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전경에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 진보 인사로 구성된 ‘일조협회’ 회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일조협회’ 미야자키 미츠오(58) 사무국장 등 회원 30여명은 이날 5·18 민주묘지 안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5월 영령들이 안장된 묘역을 일일이 둘러봤다. 미야자키 미츠오(58) 사무국장은 “(5·18 민주묘지관리소 직원에게) 5·18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희생자 수가 수백 명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희생자들의 용기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준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월 금남로에 304인의 ‘세월호 꽃영정’

“돌아와, 미안해, 사랑해!”

세월호에 탑승,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침몰 사고로 숨진 학생 등 승객 304명이 꽃이 되어 광주 금남로에 피었다.

“꽃다 핀 한송이”로 표현된 영정이 되어 금남로에 등장했다.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대성회’에서 ‘꽃다 핀 한송이’로 돌아온 아이들을 목놓아 불렀다.

전야제 대신 연 ‘5·18 민주대성회’서 시민의 손에 들려진채 옛 도청앞 전시

어 흐느꼈다.

매년 열리는 5·18 전야제 대신에 열린 이날 행사는 무등산 풍경소리와 호남 5대 종교묘역,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인권회의, 광주진보연대, 민주노동당광주본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마련했다.

지난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학생·시민들이 모여 ‘민주진주화대성회’를 열고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교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두암신협 특판

50억 한시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두암신협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본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